

선지식을 찾아서

신라 때 진표(眞表) 대사가 속리산에 이르자, 발 갈던 소들이 모두 무를 꿇었다. 이것을 본 농부들은 감동하여 속세를 버리고 진표 대사를 따라 입산수도하였는데 여기에서 '속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번잡해질 때면 한번쯤 떠올려 보는 것이 속리산이기도 하다. 밤새 내린 눈으로 속리산 전체가 흰빛이었다. 하얀 눈발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총지선원을 찾았다.



“우주도 부처님도 마음이 만드는 것”



천룡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천룡 스님의 거처는 온통 책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스님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보기에 어떤 책을 읽어도 부처님 마음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마음의 바탕은 본래 공한 것인데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이 절대인양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스님은 안타까워하였다. 날개가 크다고 하여 힘 있는 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몸체가 상을 해야 한다. 몸체가 빈약하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나 바위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다. 돈, 권력, 명예는 삶의 날개는 되겠지만 그것이 몸통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지시하고 깨닫는 자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을 압축한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팔정도요,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에 보면 '조견오은개공(照見五'...

산을 날아서 다녔을 정도로 몸이 가벼웠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길을 다니니까 아이들이 미친 사람인줄 알고 돌을 던지고 놀리기도 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아픈 줄도 몰랐다.

"맹렬하게 기도한 지 1주일쯤 되니까 꿈에 허연 노인이 나타나 뭐라고 현몽을 해 주더군요. 그런데 참선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구하는 마음 없이 엄밀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이지만, 참선과 기도의 심성 작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행을 하면 세상이 여실하게 보이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몰록 비어서 무아의 안목으로 보면 나무는 나무, 산은 산, 물은 물로 보이게 됩니다. 팔정도에서 정견(正見)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먼저 자기 마음의 눈을 떠야 해요. 마음의 눈을 뜨면 신비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비라고 하니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비란 우주하고

따라서 창조주가 될 수 있지. 인연 따라서 모든 것에 응할 수 있는 본자리가 바로 무아의 자리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심론정정이라, 주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이거나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기적 차원에서 보면 남이 없어요. 남에게 보시할 때 주는 내가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지요."

천룡 스님은 부연설명으로 동산 스님의 일화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어떤 제자가 동산 스님께 물었다.

"여름에 더위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며, 추운 겨울이 오면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나?"

그저 동산 스님은 "추위가 오면 추위를 죽이고, 더위가 오면 더위를 죽여라"고 답하였다.

천룡 스님은 이 선문답에 대해 "자아를 죽이고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위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지. 보시할 때도 마땅히 자아를 죽이고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해요. 나를 비워야 보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룡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자니 시간이 살같이 흘러가 버렸다. 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단다.

"분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속심이 별 것 아니야. 너, 나, 높다 낮다, 예쁘다 추하다. 이것 저것 등 분별심으로 보고 듣는 것이 세속심이지. 불교는 천당도 지금 여기서 보고 지옥도 여기서 보고 어둠도 여기서 보아야 해요. 작용하는 것 모두가 불교이며, 불교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 세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쉽고 평범하게 정진해야 합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께 매이는 것은 형식 불교에 불과해. 그렇게 해서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없지요."

천룡 스님은 날마다 뒷산을 오른다. 산은 어제 올랐을 때는 어제의 신비가 있었고, 오늘 올랐을 때는 오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움만 하단다. 우리들도 날마다 맛이 하는 하루지만 날마다 새롭게 맞이해야 한다. 오늘은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 곁에 온 신선한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새로움도 경이로울 것 같다.

겨울의 해는 짧아 그새 법주사 마당에 산그늘이 내려앉았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물소리가 경쾌하기만 하다.

글: 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반야심경 핵심은 몸과 마음이 '공' 함을 깨닫는 것

“너와 나 분별하는 세속심 버리고 쉽 없이 정진해야”

蘊皆空(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온이란 몸과 마음인데 이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한 것이야.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통을 초월할 수가 있지. <반야심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야. 부처님도 하느님도 마음이 만들고 우주도 마음이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음의 눈만 뜨면 창조주야."

스님은 3개월 동안 만행을 한 적이 있다. 만행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반드시 결식을 할 것이고, 노상에서 잘 것이며,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닐 것.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만행을 하였다. 배가 고파 기진맥진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먹을 것을 주고 해서 스님은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인드라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또 스님은 기도수행과 참선수행을 다 해보았고 그 신비를 체험하였다. 한 때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맹렬히 하였다.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해가 뜨면 산에서 내려왔다. 그때 몸에 중량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정말

대화하는 것이야. 내 자체가 우주가 되어 버리지. 우주와 내가 하나 되면 재미있고도 대화할 수 있지. 우주는 그대로 광명이야."

천룡 스님은 서울 나들이를 한 적이 수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종교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불교계가 부끄러워서 서울 나들이는 염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회는 온통 '네 탓이요' 하는 소리로 넘쳐나는데, 방 한 칸을 우주 삼아 검박하게 생활하시는 천룡 스님은 스스로가 '네 탓이요'라고 참회하신다. 천룡 스님께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말없이 묵묵히 세상을 밝히시는 천룡 스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기만 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천룡 스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물었다. <금강경>은 공을 논한 정인데 왜 보시에 대한 구절이 많은지 질문하였다.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大乘)이란 뜻을 큰 수레에 많은 사람을 태워 구제한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글자에 얽매인 해석이야. 대승이란 마하연 즉 공사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나를 비워야 우주가 들어오고 내가 우주가 될 수 있잖아요. 무아가 되면 인연

천룡

스님은 196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화산, 금당, 비슬산, 도성암에서 선(禪)을 경험하였다. 향곡, 경봉, 서운, 월산 선사를 도사서 매증을 지도하였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은거하였으며, 법주사에서 오랜 세월의 은거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을 고향을 떠났다. 지금은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한주로 있으며, 참선과 독서와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시집 <이것이 마음이다> <간화선의 고향> <나는 누구인가> 등이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쭈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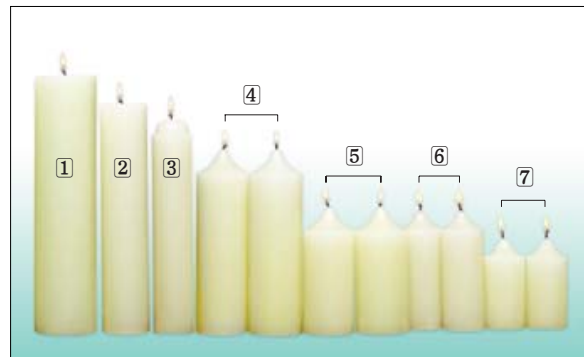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입 받침대 2개)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쭈향 양초

- 1 원기둥 7.4φCm × 29Cm
2 돈타레 5.6φCm × 27Cm
3 밀 대 4.7φCm × 25Cm
4 1호 5.9φCm × 20Cm
5 2호 5.9φCm × 14Cm
6 3호 4.7φCm × 13Cm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아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아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 동산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창 양초.net